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

간행일은 알 수 없다

요즘 들어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면서 한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으로 세계적인 공인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금속활자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이다. 물론 금속활자는 최종의 목표는 아니다. 또한 예술품도 아니다. 오직 금속활자는 책을 간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최종 목적은 책을 통해 지식정보의 전달이었다. 이러한 지식정보를 통해 우리 인류는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식정보의 전달을 위한 금속활자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발명되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한국을 세계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민족적인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한국이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13세기초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13세기 초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기록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상정예문(詳定禮文)」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1239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 삼성출판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의 발문에 의하면, 원래 금속활자본을 다시 목판으로 번각(飜刻)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것으로 보아 1239년 이전에 이미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규보의 개인 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상정고금예문」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문 기록에 의하면, 「상정고금예문」은 총 50권으로 이루어 졌으며, 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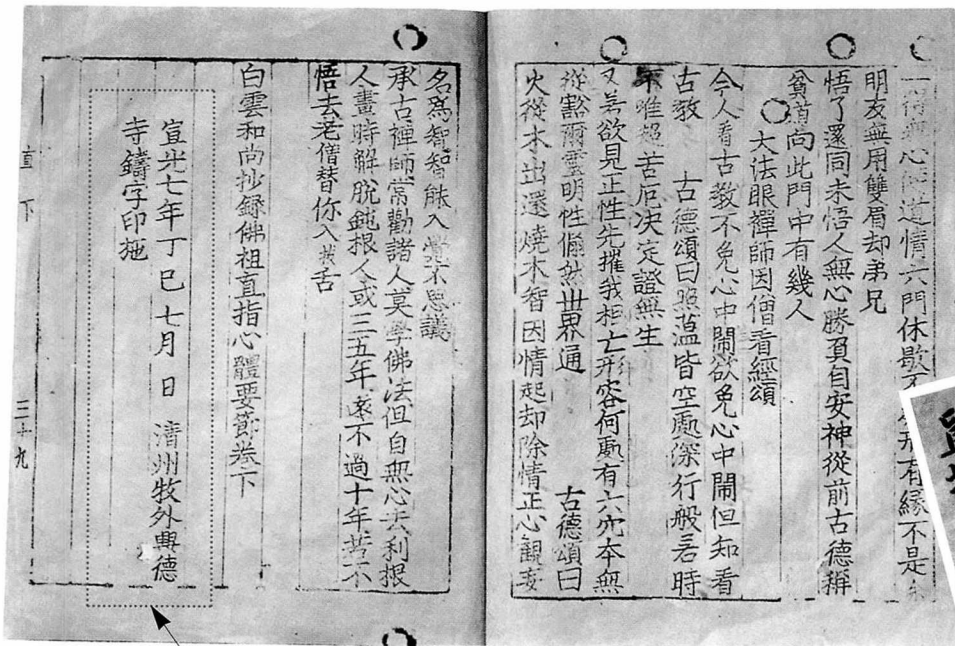
관서에 나누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행연도는 진양공을 대신해서 쓴 것으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최이가 진양공이 된 1234년에서 이규보가 죽은 1241년 사이에 쓴 것만은 틀림없다.

이것은 기록으로만 전할 뿐 실물이 전하지 않고 있으나, 이 두 가지 기록으로 보아 금속활자 인쇄가 13세기 초에는 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직지」는 1377년(고려 우왕 3년)에 간행되었으며, 그 실물이 비록 국내에 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직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금속활자본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하권 1책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주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인쇄본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광 불갑사에 각각 상·하권이 묶인 1책씩 전하고 있다. 그리고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을 1613년에 송노암(松老庵)이 필사한 필사본 1책이 전하는데, 프랑스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하권 1책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취암사 목판본을 조선후기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2책이 전하고 있다. 또한 「직지」의 저자인 백운



「직지」 간기

화상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백운화상어록」이 여주 취암사에서 1378년 7월에 목판으로 간행한 1책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는 언제 간행된 것일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하는 「직지」

하는 '한국표준연력'을 통해 알아보면, 고려시대에는 음력을 사용하였으며, 7월은 30일까지 있는 큰달에 해당된다. 따라서 7월 1일은 현재의 양력으로 환산하면 8월 5일 수요일이며, 7월 30일은 9월 3일 목요일이다.

이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을 기준으로 「직

구분	흥덕사본 「직지」	취암사본 「직지」	「백운화상어록」	비고
간행년월일	1377년 7월	1378년 6월	1378년 7월	
서문 (연월일)		이색(1378년4월5일) 성사달(1377년3월)	이색(1378년 4월 5일) 이구(1377년 3월 1일)	성사달과 이구의 서문은 석찬, 달잠의 요청으로 작성
문인	석찬, 달잠	법린, 지명, 혜전	법린	
간행처	청주 흥덕사	여주 취암사	여주 취암사	
간행방법	금속활자(鑄字)	목판	목판	

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清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
緣化門人 釋璨, 達湛
施主 比丘尼 妙德

의 간행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간행시기는 1377년(고려 우왕 3년) 7월, 간행처는 청주 흥덕사, 인쇄방법은 금속활자(鑄字)를 이용하였으며, 「직지」의 인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백운화상의 시자 즉, 비서였던 석찬과 달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행에 필요한 자금을 낸 후원자는 비구니 묘덕이었다.

「직지」를 간행한 연월일은 1377년 7월임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직지」의 간행 연월일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에서 제공

지」의 간행 연월일을 추정해 보면, 1377년 8월 5일에서 9월 3일 사이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직지」의 생일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지」의 구체적인 간행 날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찾아지기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직지」 서문 수록의 가능성이 있는 상권이 찾아지길 기대해 본다.